

■ 제주도교육청 어제 개학 준비상황 언론 브리핑

“방역물품 확보·급식환경 개선 주력”

이석문 교육감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대응 추경 편성”

오는 4월 6일 예정된 개학일까지 남은 2주간 방역물품 확보, 급식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숨가쁘게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신속 집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학년 개학까지 앞으로 2주 남았다.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며 “자발적 협력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최고 수준의 조치로 개학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 확보다. 도교육청은 개학 당일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전체 학생 9만816명에게 1인 당 면마스크 2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면마스크 18만장 구매에 나서고 있다.

학생 수가 600명 이상인 초·중고 51곳에 설치될 발열 감지 카메라 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발열 감지

카메라 54대를 우선 갖추기로 했지만 이 역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별 상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급식실 안에서의 거리두기도 시급하다. 이에 급식 시간을 늘려 인원을 분산하고 식탁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학교 상황에 맞게 검토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매 뉴얼에 담아 각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제주 여건에 맞는 온라인 학습 기반 구축에도 시동이 걸린다. 학교 혼

디거넬팁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 예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된다.

이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쓰지 못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입하겠다”며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추경 예산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교가 혼디거넬팁과 방역 등에 예산을 주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희망으로 손잡고 총력을 다해 개학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튤립 향 맡으며 걷는 관광객들 따뜻한 봄날씨를 보인 24일 서귀포시 표선면 보름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튤립밭을 걸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농번기 코 앞인데”... 농촌 일손확보 ‘비상’

코로나19 사태로 4-6월 양파·마늘 수확부터 인력난 우려

코로나19 사태 속 농번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 인력 수급체계’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구축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내·외 이동 감소, 동남아 지역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연 등으로 4-6월 농번기에 인력난이 우려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역에 맞춰

작물별 파종부터 수확까지 연중 인력을 공급하고 유상인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우선 도내 영농지원 구직자를 대상으로 품목별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4-6월까지 양파와 마늘, 하반기에는 당근과 월동무, 양배추 등의 파종과 수확 작업을 지원한다.

도외 인력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수확단에 도내 참여자를 확대한다. 또한 감귤 및 발작물 주산지간 인력 교류 추진을 위한 협

의회를 구성해 마을별 부녀회를 중심으로 ‘수놓음 운동’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감귤원 전정 작업단을 구성해 여성농업인을 우선 지원하고 고령농업인 등 일손 부족 농가에도 대형 서비스를 진행하며 도내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코로나19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불안감을 해소해 인력 이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과 농협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기로 했다. 송은범기자

‘민식이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자치경찰 어린이통학로 CCTV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 신설, 통학로 내 CCTV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안전시설이 우선 설치되며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 유발시 기존보다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2월 5일 전국 최초 선제적으로 자치경찰단 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신설했으며, 통학로 상 민식이법에서 정한 신호기·과속단속용CCTV 설치를 비롯한 방범용CCTV·불법주정차단속용CCTV·일방통행로 지정·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방범안전 시설을 설치·지정 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다음달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대적인 시설보강을 위해 사업비 12억8000만원(행안부 40%, 도비 40%, 교육부 20%)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보강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이후 어린이 통학로 상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등 확대 사무의 시설개선은 관계부서와 협의, 예산 재배정을 받아 촘촘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어린이 통학로라는 확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며 “전담팀을 중심으로 오라초등학교와 같이 수년간 열악한 통학환경에 처한 학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통학 환경 개선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목표는 도내 현재 개선 사업 추진 중인 오라초등학교를 비롯한 4-5개 초등학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대로그기자

“올해는 제주대 캠퍼스 벚꽃 구경 안돼요”

코로나 확산 방지위해 4월 5일까지 외부인 출입 통제

제주대학교는 오는 4월 5일까지 외부인들의 학내 출입을 통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운동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벚꽃 개화기를 맞아 제주대 캠퍼스의 벚꽃 풍광을 즐기려는 상춘객들의 방문이 늘면서 코

로나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들은 캠퍼스 출입을 할 수 없다.

제주대는 언론과 대학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등을 통해 출입제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주말과 휴일에는 외부인들의 학내 출입을 막기 위해 특별 근무조를 편성, 운영한다. 전선희기자

벚꽃 이달말 전후 절정

제주지역에서 대표적인 봄꽃 중 하나인 벚꽃이 개화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4일 제주지역 벚꽃 개화 기준이 되는 기상청의 벚나무 표준 관측목에 벚꽃이 개화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개화일은 지난해(3월 25일)와 평년(3월 25일)보다 하루 빠르다.

기상청은 표준 관측목 한 가지에

꽃이 세 송이 이상 활짝 피었을 때 개화했다고 말한다.

기상청은 벚꽃 개화에 영향을 주는 올해 3월 평균기온이 지난해보다 0.5℃, 평년보다 1.9℃ 높아 일찍 개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벚꽃은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뒤 활짝 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에서는 이달 말을 전후로 벚꽃이 만발해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축

승진·취임 합 격

해양경찰 치안감 미국공인회계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AICPA)

김도준 박수지

(부·박기남 총경·모·서지원)

해양경찰 치안감 승진·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취임과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 의 회

회 장 김 양 옥 외 회원일동

축

승진 취임

해양경찰 치안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도준

해양경찰 치안감 승진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삼촌 가족 일동

외삼촌 조태욱 외숙모 강경자
김영희·조민희 류성필·조선희 조영범·문정두 조재범·조창범·이미선

축

취 임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강 태 선

(도총회 고문·블랙야크 회장)

한국스카우트연맹 제16대 총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주강씨제주도총회 회장 강원희
진주강씨충정공파총친회 회장 강명철
진주강씨제주도청년회 회장 강영로
진주강씨충정공파청년회 회장 강봉재

축

당 선

서울제주도민회장

강 한 일

서울제주도민회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덕중학교 제14회 동창회

회 장 양 홍 문 외 회원일동